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2
568-5595~6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록일 : 1988년2월19일

會訓
創意 · 奉仕 · 誠實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1千6百83億7千萬원 要請

96漁港건설豫算

定期國會에 올보다 1百54億9千萬원 增額

未完工港 集中투자 基本시설 完成목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이 1천6백83억7천8백만원 규모에서 정부안으로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금년대비 10·1%、1백54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은 올해보다 13·3%、1백50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1천2백79억8천9백만원이며、제2종어항은 3백85억원으로 10억원、2·7%가 늘어났다。

수산청은 이에따라 WTO출범으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내년도 어항건설 사업목표를 미완공 어항에 집중투자하여 기본시설을 조기에 완성할 계획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내년도 어항건설은 정비 확장을 포함한 계속투자 35개항과、해운항만청 관리 연안항중 수산청으로 이관될 일부 어항을 포함한 23개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58개항에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특히 태풍등 재해방지와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 사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996년도 어항건설예산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96예산요구	'96예산조정(A)	'95예산(B)	증△감(A - B)
합계	214,081	168,378	152,884	15,494(10.1%)
〈일반회계〉	50,430	41,278	32,984	8,294(25.1%)
제1·3종어항	47,527	39,389	30,567	8,822(28.9%)
시설비	44,670	38,477	29,780	8,697(29.2%)
부대경비	2,857	912	787	125(15.9%)
어항사무소	1,309	909	2,222	△1,313(△59.1%)
기타	1,594	980	195	785(402.6%)
〈농특회계〉	163,651	127,100	119,900	7,200(6.0%)
제1·3종어항	103,651	88,600	82,400	6,200(7.5%)
시설비	100,000	86,060	79,500	6,560(8.3%)
부대경비	3,651	2,540	2,900	△360(△12.4%)
제2종어항	60,000	38,500	37,500	1,000(2.7%)
제1·3종어항소계	151,178	127,989	112,967	15,022(13.3%)
제1·3종어항 시설비소계	44,670	124,537	109,280	15,257(13.0%)

漁港청소선 바다淨化 큰 成果

流出油·汚廢物제거등

漁港協 需要조사 나서

■한국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어항청소선이 최근 남해안 씨프린스호 좌초와 태풍 제니스로 인한 유출유류및 오폐물 수거작업에 적극나서 여천군 소리도 덕포만 일대에서 습포제와 기름부유물 등 3만2,150㎏을 수거한데 이어, 군산내항에서 부유물 및 항행장애물 6,600㎏을 수거했다.

한국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어항청소선이 최근 남해안 씨프린스호 좌초와 태풍 제니스로 인한 유출유류및 오폐물 수거작업에 적극나서 큰 성과를 올렸다。

지난 8월초 남해지역 어항905호가 여천군 소리도 덕포만 일대에서 습포제와 기름부유물 등 3만2천1백50㎏을 수거한데 이어、8월말 중부지방의 급작스런 집중호우와 제7호태풍 제니스로 인해 금강하구댐에서 방류된 폐기물이 군산내항 도선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의 지원요청으로 서해지역 어항902호가 출동、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9일간 부유물 및 항행 장애물 6천6백㎏을 수거했다。

이와함께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각 시군 및 일선수협에 제1·3종어항에 대한 어항청소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보다 적극적인 어항청소선 운영을 위해 제2종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도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어항협회는 제1·3종어항과 제2종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대한 청소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효율적으로 어항청소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海外 先進어항 視察

日·濠洲등 3個國서

제7차 10月 10日 登程

한국어항협회는 제7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을 오는 10월10일부터 19일까지 9박10일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찰에는 수산청 및 각 시·도 어항관계자를 비롯 일선수협 시공업체 용역업체 등에서 47명이 참가 신청을 해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크게 늘어났다。

금년도 제7차 시찰단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和歌山현의 和歌浦어항、雜賀崎어항、田ノ浦어항과 어항 환경정화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과 데븐항 그리고 세계3대 미항의 하나이면서 첨단시설을 갖춘 호주의 시드니항을 각국 어항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시찰할 계획이다。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은 해외선진국의 어항시책과 어항건설 현황、관리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두루 살펴봄으로써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회 주관하에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農漁村 産業地區 신설

道면적의 最高10% 工場敷地難 해결

다음달부터 준도시지역내 용도지구의 하나로 농어촌 산업지구가 신설되고 道면적의 최고 10%까지 범위내에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가 9월15일 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 제출한 「건설교통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입지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확충을 위해 준도시지역내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신설、각종 공장유통단지등 2、3차 산업시설을 유치키로 했다。

또 전국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道면적의 2% 범위내에서 5년간 최고 10%까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다음달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도시지역내에 취락 운동·휴양 집단묘지 시설용지외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시·군에서 지정할 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농어촌 산업지구의 신설이 지자체의 지역 개발 낙후문제와 산업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촌의 경우 농지전용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준도시지역은 3억2천3백38만평(9백95㎢)이며 이중 7천53만평(2백17㎢)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백72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정도를 심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 국고지원으로 기반시설을 갖춰 주기로 했다。

漁港·어촌開發 어민定住圈 확보를

高德鳳전무 水産廳 간담회서 역설

수산청은 지난 8월30일 퇴직한 국·과장을 초청、수산현안의 설명에 이어 현 수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광훈 수산청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고덕봉 본회 전무이사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획물의 고부가 창출과 관련、가공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현 수산업법을 어업법과 수산제조가공법으로 분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어민이 어촌사회를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항중심의 어촌정주권 확보가 관건이므로 투자확대로 어항어촌을 종합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진港 항내淨化

蔚山水協

울산수협은 방어진항의 항내 정화를 위해 정화선 1척、예인선1척、바지선2척등 어장정화선 4척을 동원하여 지난 8월26일부터 정화작업을 실시、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협관계자는 방어진항내의 퇴적준설토、생활쓰레기등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신선한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과 해변의 청정화가 이뤄져 방어진항을 찾는 일반 관광객의 증가로 주변 횟집등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6년 漁港예산 原案 통과돼야

水産業 경쟁력强化 基幹으로 役割막중

國土均衡 발전과 連繫 종합적 開發을

漁港建設 公共투자 擴大 최우선돼야

해마다 이맘때쯤 정기국회가 열리면 어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수산청등 관계당국이 긴장하며 마음 졸이는 일이 있다. 다름아닌 새해 어항건설 예산의 국회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확정, 국회에 제출한 96년도 어항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1%정도 늘어난 1천6백83억7천8백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2천1백40억8천1백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규모의 어항건설 예산이라는 사실을 어항인 모두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항건설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이기는 하나 내년도 수산 전체예산 총 7천3백27억8천1백만원에 비하면 겨우 22.3%에 지나지 않는다.

이웃 일본의 경우 어항예산이 수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매년 62% 내외임을 볼때 우리나라 어항건설 예산의 규모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한눈에 비교가 된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에 어항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그 이후 어항정비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 수산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항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 제1의 수산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같은 총력적인 어항투자에 기인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산당국에서 신중히 검토,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어항건설 예산은 두말할 여지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항건설 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지만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단순기능의 인식은 이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수산대국으로 성장했으나 2백해리체제의 정착에 따른 연안국의 어장규제 강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연안어장 오염, 노동력 부족 등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과 오는 97년까지는 수산물 수입을 완전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같은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국민의 영양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식량자급력의 향상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어항을 단순히 어선보호나 생산유통의 기반으로서 뿐만아니라 재배 양식어업의 센타로서, 전국의 어항어촌을 수산업의 거점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어촌개발의 핵으로서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해안도로 건설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보전 및 지역활성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에 부응하는 충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차원에서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이와함께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친수성 여가선용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해양성 레크리에이션과 신선한 수산물을 찾아 도시민이 어항어촌으로 모여드는 등 일반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어항어촌을 국민레저, 관광단지화 하여 어업외 소득증대는 물론 도·농·어간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어항어촌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 개발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焦点

日, 水産예산 62%할애 漁港重視 반영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항어촌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어촌을 떠나는 어민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특히 어항은 불특정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 임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이 미흡하여 가장 기본적 기능인 어선의 안전정박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어항 개발을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족시켜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활력있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항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어항건설예산의 지속적인 증대 외에는 묘방이 없음을 강조한다.

監理費 집행實態조사

財經院 감리원 資質 與否도

재정경제원은 공공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위해 책정된 감리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올 연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50억원이상 신규 공공공사의 경우 전면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케 됨에 따라 올해엔 총8백61억원의 감리비 예산을 책정, 각 정부기관별로 발주 시행해 오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들어 공공발주처들이 감리비 부족에 따라 공사낙찰차액이나 타비목의 예산을 감리비로 전용해 주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상지연이나 정부 귀책사유 등으로 감리비가 모자라는 경우 예산전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처럼 감리비 집행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이후인 12월중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리비 부족 사유 및 예산전용 실태등 감리비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현행 감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감리인력 부족이나 감리원의 자질여부도 파악, 감리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내년도 공공공사 감리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35.4%(3백5억원)가 늘어난 1천1백66억원으로 책정했다.

19개 엔지니어링 공통 技術開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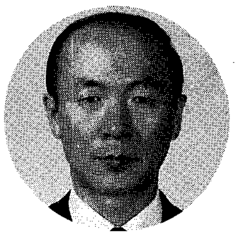
科技處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시설이나 안전성 확보가 긴요한 도로 터널 교량등의 새로운 공법과 공정개발을 위한 건설핵심 공정 및 공법기술을 비롯해 지능화 최적화한 복합화력발전소의 기본설계기술등 19개 엔지니어링 공통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기처는 오는 2005년까지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주요 기술분야의 19개중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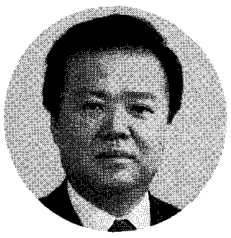
이에따라 과기처는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국산기술로 개량하는 중간진입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요지향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물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動靜



朴光勳 수산청장

▲박광훈 수산청장은 지난달 28일 세이셸 콘라드 벤오통 국제사업청장등 경제사절단의 예방을 받고 어업협정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예방을 받고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5차 총회 개최 및 우리나라와 동기구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 9월1일에는 키리바시 자원개발부 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어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4일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 수산물 출하상황등을 점검하고 추석제수용 수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이어 화곡동 소재 장애아 시설인 교남소망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 14일에는 당정협의회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달 29일 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남해안지역 어항청소선 「어항905호」를 순시, 여천앞바다 씨프린스호 좌초로 인한 유출유류 수거작업에 참여하여 기름부유물 및 수포제 3만2천1백50kg을 수거한 선장·기관장등 승선원을 격려하고 어항청소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과 청소선 안전관리 운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 이어 남해어항사무소를 방문하고 업무협조를 당부, 9월20일에는 송자 연세대학교 총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여류작가 이영희 초청 「한일고대교류의 진상」 세미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9월3일 수산물백화점 분당점을 방문하고 중추절을 맞아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 6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95우리농축수산물 대축제에 참석, 12일에는 외국인 선원 송입 노사협의회를 주재, 14일에는 농수축임협 중앙협의회에 참석, 16일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협동조합연맹 1백주년 기념대회에 참석차 출국.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9월15일 인도네시아에 검사원을 파견, 원양채낚기어선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출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가야 보존회의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4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5일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이사회에 참석, 14일에는 소년선도위원회 이사회에 참석, 15일에는 광주라이온스클럽 자문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올림픽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올림픽개최 7주년 기념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2일 21세기정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4일에는 민자당 지구당위원장회의에 참석, 21일에는 민자당 재정위원 오찬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20일에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9월12일 현장소장 및 총무단 회의를 주재.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22일 서귀포 및 남제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이달말부터 10월5일까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주관하는 중국지역산업시찰에 참여.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9월3일 여수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직원들을 격려.

▲양성후 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3일 남제주군 소재 남원도서관 기공식에 참석.

인사

▲수산청은 9월7일 인사를 단행했다.

△원양어업관 송상철 △국제협력관 박규석 △수산물검사소장 김민종 △원양어업관실 원양생산담당 직무대리 나택균

주소변경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사장 손일수)은 9월13일 강남구 역삼동 702-13번지 성지하이츠 I 2층 1-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전과 같음)

회원가입

■ 단체

▲주식회사케이에스에스엔지니어링(사장 김영수)

■ 개인

▲정해택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장)
▲정병삼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강호석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조동영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서성룡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회비납부

■ 단체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언)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회장 고세진)
▲주식회사백제종합건설(사장 김병문)
▲주식회사케이에스에스엔지니어링(사장 김영수)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승필)

■ 개인

▲정해택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장)
▲정병삼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강호석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조동영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서성룡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漁村따라 漁港개발 漁港따라 觀光개발

都給한도액制 廢止 97년부터

施工능력 檢證受注 開放통상 마찰豫防

建交部

도급한도액 제도가 오는 97년부터 폐지돼 건설업체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공능력만 검증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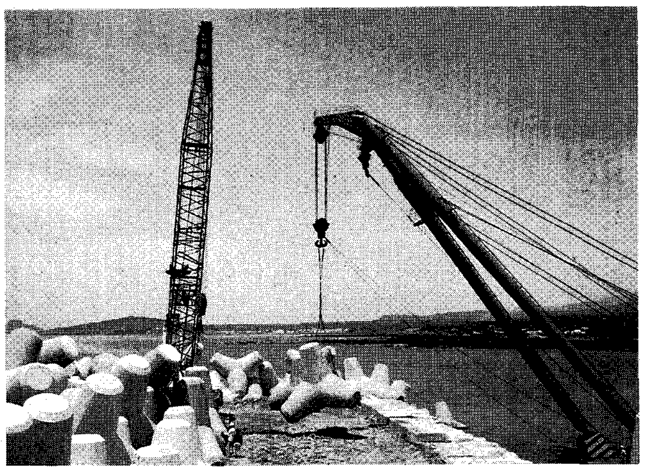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는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정해 사용하게 되며, 민간공사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시공능력을 참작, 시공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현행 도급한도액 제도가 시장개방 이후 통상마찰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적격업체 선정상의 한계, 시장의 인위적 분할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건설시장 개방시점인 오는 97년부터 폐지키로 시행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제도의 폐지로 한도액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되 한도액 평가와 공시는 계속해 각 발주기관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면허권자가 시공능력을 계속 평가 공시하게 됨에따라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업무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일부업계가 한도액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수주질서 혼란 및 시공능력 판단기준 상실등의 문제도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준 마련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7년부터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工事규모 明文化

實績제한競爭 집행기준 改正

조달청은 9월1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실적제한경쟁집행기준을 개정, 이날이후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 갔다.

이 새기준에 따르면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되는 공사의 규모를 추정가격 20억원(전문·전기·통신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로 명문화하고 종전 실적제한 대상이었던 정수장 공사를 제외한 반면 연면적 5천㎡이상의 교육연구시설과 운수시설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PQ대상공사 중 PQ로 집행되지 않는 공사도 실적제한경쟁으로 집행토록 했다.

또 시공실적에 시공중인 공사와 부분·보강공사를 제외하되 실적보유 업체가 5개사 내외인 대안입찰·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 기준은 실적제한집행기준을 공종에 관계없이 당해공사 규모의 3분의1이상 시공실적으로 하고 제한대상 공종규모가 전체공사 규모의 20%이상일 경우에만 실적제한기준을 적용·집행토록 하는등 운용기준은 대부분 종전과 같게 규정하고 있다.

複數예비가 公開

電氣通信공사·공공用役등

앞으로 1백억원미만 공공공사(전문전기·전기통신공사 55억원)와 10억원 미만 공공용역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되는 복수예비가격이 입찰전에 모두 공개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와 용역입찰에 적용되는 복수예비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 내용을 일부 개정,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입찰일 7일전에 모두 공개하도록 발주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수예비가는 발주기관마다 의무적으로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종별 관련협회에 통보하되 PC통신망 이용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의 경우는 해당협회 지부에 통보토록 했다.

SOC施設확충施策지속

政府 20億미만 工事 先給金 비율 높여

정부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 및 인력개발, 자본재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경제추진위원을 비롯 각계 대표 및 관련 공무원등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및 산업인력공급 촉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날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신경제 장기구상 작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경기는 호황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연간으로는 9%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 속에서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水産被害 53億 5千萬원

颱風 제니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제니스로 인한 수산피해는 53억5천2백만으로 집계됐다.

중앙합동조사반이 집계한 피해내역에 따르면 양어장등 내수면과 해면의 증양식시설이 34억5천2백만원, 어망·어구가 11억2천4백만원, 어선 1백여척에 대한 피해가 2억6천7백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지역이 36억3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냈다.

한편 수산청은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복구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基幹시설工事 점검

豫定價이하 受注 현장등 集中 조사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철도청 해운항만청을 비롯 19개 시설사업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각 집행기관에서는 예정가격이하로 공사를 수주해 시공중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현장, 터널등 특수구조물이 포함된 현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부실벌점제 시행근거가 마련됨에따라 점검결과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와 감리 및 설계업체, 이에 관련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누계관리할 방침이다.

어항건설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업종 : 상업항, 공업항 및 어항설계, 공유수면 매립설계

主要 營業 分野

1 港灣 및 海岸
· 商業港, 工業港 및 漁港 設計
· 公有水面 埋立 設計
2 道路 및 構造
· 高速道路, 主要 國道 設計
3 上下水道
· 管路, 工業用水路 設計
· 下水處理場 設計
4 團地 및 都市 計劃
· 都市計劃에 의한 宅地開發 設計
· 團地內 一般 土木 設計
5 PLANT 土木
· 各種 PLANT 基礎 및 構造解釋 設計
6 鐵道
· 國鐵 및 産業用 鐵道 設計
· 高速電鐵 設計
7 土質 및 基礎
· 土質 調査 및 原位置 試驗
· 土質 및 基礎의 諸般 成果 分析
· 軟弱地盤 處理 設計
· 地下 假說 構造物 設計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 엔지니어링

代表理事 金榮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9-58/ 인천 남구 주안 7동 1432-24

☎ (02)579-3790/ (032)875-4660 FAX (02)579-3793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71〕

水産倉庫用地

③ 톤 수 계층별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톤수 계층별 소요면적을 A라하면 A는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A = \frac{D}{P} \times X \times \frac{1}{r}$$

다만, D : 수리장 사용 연 일수
X : 어선점유면적
P : 연간 수리장 사용가능 일수
r : 면적유효율(0.5정도)

④ 톤 수 계층별의 소요면적을 매월마다 누계하여 최대의 값으로 된 달의 소요 면적을 수리장의 소요면적으로 한다.
⑤ 수리장의 소요면적을 건폐율로 나눈다. 이와함께 수리용자재를 두는 곳을 고려하여, 수리장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표3)　　어선점유면적(×)

어 선 계 층	선 폭	선 장	점 유 면 적
톤	m	m	㎡
1	1.8	7.8	14
3	2.5	10.8	27
5	3.0	12.8	38
10	3.8	15.8	60
20	4.5	19.4	87
30	4.9	22.4	110
40	5.2	24.5	127
50	5.5	26.3	169
70	5.9	28.6	169
100	6.5	32.0	208
200	7.6	40.5	308

(표 1)　　연간 사용(N)　　(회/년)

작업 / 지역 \ 재질	상가도장		수리검사등
	木·FRP	鋼	木·FRP·鋼
북 부	1	1	2~3
중 부	2	1	
남 부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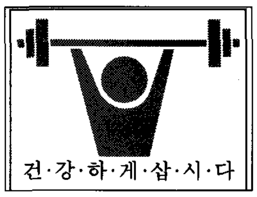
(표 2)　　1회당 사용 (d)

어선계층 / 작업구분	3톤미만	3~5톤	5~10톤	10톤이상
상가·도장	2일	3일	5일	7일
수리·검사	2일	3일	3일	4일

(참고)
어선 수리장의 산정에 사용되는 여러값을 어선의 재질, 규모등에서 수리기계의 성능등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한 다음 지역성도 감안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계획 책정시에 그들 값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 1., 2, 3에 있는 참고 수치를 사용해도 좋다.

B형 간염예방

간염백신접종이 예방 최선책
5년마다 반드시 추가접종해야



간염은 간조직에 염증반응이 일어나 간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간염바이러스 : A형, B형, C형등 기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질환 등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다.

B형간염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B형간염이 국민보건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B형간염 보균자가 10%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며, B형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며, 기타 타액, 눈물 등 간염된 환자의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된다. 혈액을 통한 B형간염의 전파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으나 수혈전 필수 검사 항목으로 B형간염균의 항원에 대한 검사를 하므로 이로 인한 전염률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분비물을 통한 경로로의 전염은 전파 경로를 확실히 알기도 어렵고, 예방방법도 효과적인 것이 없어 문제가 된다.

물론 식기의 위생소독, 1회용 면도기의 사용등 청결한 생활이 B형간염 예방책일 수 있으나 전인구의 10%가 보균인 상태에서는 큰 도움은 못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직감염이라하여 B형간염의 보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로 전염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러한 감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적으로 B형간염 보균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70%까지 B형간염 양성이 있을 수 있다 한다. B형간염은 앞에서처럼 감염의 경로를 통한 예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B형간염 바이러스로부터 추출한 B형간염 백신의 접종이 예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보통 B형간염 백신을 기본접종(3회)하면 약 5년 동안은 일정한 양의 항체가 유지되어 예방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5년 정도 경과되면 그 농도가 저하되어 방어하는 힘을 잃게 되어 5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간염예방을 위한 간염백신의 접종은 신생아에서 특히 중요하며 B형 보균자의 어머니에서의 감염률이 70%에서 5%로 저하되는 효과를 보인다. 이는 B형간염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도 B형간염 예방접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의 추가접종으로 B형간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B형간염의 예방에 있어서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청결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며, 지나친 과음이나 과다한 약물복용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활정보

시·군등 민원봉사실 안내(上)

호적 등·초본 등 58종 전화로 민원신청 가능

민원봉사실

시·군·구·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봉사실은 국민 여러분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 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민원 창구이다.

전화민원

○ 전화민원 신청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다.
○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번호를 확실하게 알아두어 교부 예정시간에 찾아가 교부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중에는 신청한 민원실에서,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당직실)에서 교부한다.
○ 전화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등 모두 58종이다.
○ 전화민원 취급대상
· 진정 또는 건의
· 도시계획확인원
· 질의(법령질의)
· 체비지증명
· 사실확인
· 체비지대금 완납증명
· 재직(퇴직·경력)증명
· 환지증명
· 원천과세 공제증명
· 공영주택 상환금 완납증명
· 국유(공유)재산 사용요금 완납증명
· 철거사실 증명
· 공사준공증명
· 국유재산 용도폐지(도로·구거)
· 실적증명(납품·용역·거래·공사)
· 도로거리증명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확인
· 급수정지(중지해제)신고
· 수치지적부 등본
· 징수처분 해제신청
· 임야대장 등본
· 양수기 점검의뢰
· 임야도 등본
· 소유자 명의변경신고
· 지적도 등본
·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 토지대장 등본
· 급수업종 변경신청
·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증명
· 수선신고
· 세목별 과세증명
· 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 건축물관리대장 무등재증명
· 상수도 시공업 허가신청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상수도 시공업 허가신청(갱신)
· 호적 등·초본
· 급수공사실적 증명
· 제적부 등·초본
· 수도사용료 완납증명
· 외국인등록표 등본
· 중기등록원부 등·초본
· 신원증명
· 생활보호(거택 또는 자활보호)
· 병적증명(조회)원
· 대상자 증명
입목등록도면 확인신청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 수렵강습회 수강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 공장등록 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 증명원
· 화재증명원
· 관광사업체 확인증명
· 환지예정지 증명
· 출판 및 인쇄소 등록증명서(인쇄소 시설
·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등록증명포함)신청
· 공영주택 증명원
· 아동복지시설증명

우편민원

○ 우편으로도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와 호적지가 다른 경우 호적등·초본이나 신원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우편신청시에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 내용을 기재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우편봉투에 넣어 신청하면 된다.
○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우편민원취급대상
· 사실확인
· 혼인신고
· 재직(퇴직, 경력)증명
· 사망신고
· 실적증명서(납품, 용역, 거래 공사)
· 호주상속신고
· 출입업자 등록신청(정기, 수시)
· 신원증명
· 출입업자 등록신청 변경공고
· 병역증 및 전역증 재교부 신청
· 공사기성고증명
· 병적증명(조회)원
· 영구보존문서의 열람 및 복사신청
· 양곡매매업 영업시설(양도, 임대)승인신청
· 행정서사사무소의 이전
· 양곡매매업영업(폐업, 휴업)신고
· 행정서사(휴업, 폐업)신고
· 근해어업허가,
· 행정서사 재개업 신고
· 연안어업허가
· 부동산 중개업 경력증명
· 허가어업의 폐지신고
· 소유권 정리신청
· 수산제조업 허가신청
· 임야대장 등본
· 수산제조업허가 신청사항변경신청
· 임야도 등본

〈다음호에 계속〉

♣ 생활정보